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반들어
모시렵니다



사 는 정 김 년 신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주체혁명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날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사상도 뜻도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만년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
나는 또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조선혁명의 만년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어떠한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

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용한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국방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내기 위한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렸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었습니다.
(2면으로 계속)

신 김 년 정 은 사

(1면에서 계속)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이 내세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방대한 목표가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 이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습니다.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었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도지구들에 대한 피해복구전투에서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짧은 기간에 기적적승리를 안아왔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당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지난해의 련속적인 철야진군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들은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다름아

닌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입니다. 적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나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력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 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단계별과업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트랙토르와 룬진기계,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열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력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성과를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리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과일과 버섯, 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고 동해안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김태대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국도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이 인민경제전반을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책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3면으로 계속)

신년정신

(2면에서 계속)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습니다. 천만군민이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합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 여든다섯돛이 되는 올해에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군에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치게 하며 또다시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중,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 강도높은 싸움준비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피땀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어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제로 힘있게 불리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과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어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벌처럼 깡그리 불태워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밀뿌리쳐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썸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 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라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의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

을 열어놓는 매우 의미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세우기 위해 드세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갈것입니다.

승 리 에 서 더 큰 승 리 에 로

주제 106(2017)년의 첫 아침이 밝았다. 조선로동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만만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축복속에 새해의 아침이 밝아왔다.

가슴벅찬 사변들과 눈부신 비약으로 수놓아진 송년의 자욱자욱을 기쁨과 긍지속에 추억하며 신년을 맞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더 좋은 래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차넘치고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에도 생기와 랑만이 어려있고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나와 2017년의 첫아침을 더욱 흥그럽게 하고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 더 좋은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이 없으면 결코 펼쳐질수 없는 풍경이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이와는 대조되는 풍경들도 시야에 안겨든다.

세계적으로 해를 이어 지속되는 내전과 지역분쟁으로 소란스럽고 경제침체와 민생악화로 도처에서 아우성이 터지는가 하면 피난민행렬이 그칠 줄 모르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도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에서도 2016년의 한해는 혼란과 파국으로 점철되고 나중에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져 《대통령》란책사태가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회정치적위기가 년말까지 휩쓸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한해를 긍지높이 마감하고 더 밝은 래일에 대한 포부와 락관으로 신심드높이

새해의 문을 연 공화국이다.

무릇 어제를 보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한다. 2016년은 공화국에서 어떤 해였는가. 한마디로 격동과 사변, 기적으로 총만된 특기할 승리의 한해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령도자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져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했다. 온 나라 도처에서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령도자의 구상이라면 산도 더웁히고 바다도 메우는 군민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적대세력의 류례없는 《고강도제재》와 압박소동이 기승을 부리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공화국은 자기힘으로 핵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동방의 새로운 핵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국제사회계는 《조선의 핵과 수소탄은 미국이나 로씨야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개발된 최첨단핵탄이다.》, 《단 한방으로 미국의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같은 대도시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며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을 시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성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어 선군조선의 자존과 권위, 강요한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광활한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올려세우고 미더운 백두청춘들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진소를 짧은 시일안에 건설하여 공화국의 전도, 밝은 래일이 어떻게 담보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온 나라 도처에서 지식경제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어 생산적양양이 일어났으며 국산화의 세찬 열풍속에 자체의 원료, 자재, 설비들에 기초한 생산공정들이 확립되고 국내산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와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큰물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어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고 홍건도간석지 1단계,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미래상점과 류경안과중합병원,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 평양중등학교를 비롯한 만리마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고 려명거리건설도 빠른속도로 추진되었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산과 과수, 수산부문에서 알곡생산성과가 기록되고 희한한 과일대풍, 《이채어경》이 펼쳐져 온 나라를 흥성있게 하였으며 국제체육무대에서는 공화국의 여자축구선수들이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 이어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련이어 우승하는것과 같은 통쾌한 체육신화들이 창조되었다.

공화국이 잘 살고 강해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가장 비렬한 제재와 봉쇄의 울가미를 더욱 조이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이 2016년을 창조와 변혁,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는것은 그야말로 행성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무엇이 조선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세기의 대비약을 낳게 하였는가.

그 비결은 위대한 령도자의 위대한 구상과 비범한 령도, 전체 인민의 무한한 애국충정과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령도는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에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의 철퇴를 내리는 불호령이였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승리의 기치였다.

공화국의 강한 군력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것이다.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리시였다.

지난해 신년사를 마치신 그길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신 그이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평양복산공장, 새 세기 표본공장,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보전산소공장, 류경산치공장, 평양자라공장, 룡악산비누공장 등 여러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지난 3월에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데 그 바쁘신 속에서도 현지에 나오시어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 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그이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이 땅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어 날로 비약하고 변영하여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이룩할수 있고 능히 제힘으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2016년이다.

공화국이 가는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며 제힘으로 기적과 전변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의 힘찬 모습을 보면서 세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격찬을 금치 못했다고 세계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그이의 애국애민의 헌신의 자욱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고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만리마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놓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나날이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향상되고있다. 조선의 거대한 힘의 원천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자강력제일주의에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들고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다.》...

만사람이 동경하고 찬란하는 오늘의 조선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강한 나라, 흥하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그 이름 떨치고있는것이다.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시고 밝은 미래이시다.

그이의 환하신 미소, 빛나는 예지가 새해 공화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2017년에도 어떤 기적과 전변이 이 땅에 펼쳐지는가를 사람들은,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열화와 같은 믿음과 애민헌신으로 천만인민을 매혹시키고 온 세상을 통체로 안겨주시는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여 세계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세기적기적과 전변이 공화국의 2017년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것이다.

이 새로운 희망과 포부, 신심에 넘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발걸음도 높이 활력과 랑만에 넘쳐 또다시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질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기쁨속에, 랑만속에 밝아온 새해

날마다 변이 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새해의 첫아침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새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불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하여 우울과 비관속에 맞는 절망의 새해로 되고 있지만 이 땅에 찾아오는 새해는 부푸는 새로운 꿈과 희망, 즐거움과 랑만속에 맞이하는 기쁨의 새해, 행복의 새해로 되고 있다. 뜻깊은 2017년의 새해를 맞는 공화국인민들의 이 기쁨과 랑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새해에도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용이 남김없이 펼쳐지리라는 기대와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합의 체결에서 련전련승을 떨치었다. 지난해 1월 초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새해의 서막을 연 공화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과 강인한 담대한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세계의 군사정치형세가 달라지고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미국은 조선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결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지난해는 그 비참상이 더욱 처절하게 미국땅에 새겨져 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는 조선의 힘을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강위력한 힘으로 초대국을 제압하는 조선에 대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온 한해동안 세계를 진감하였다.

승리는 영원히 공화국의 것이다. 새해에도 공화국은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것이다.

이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맞이하는 2017년인 것으로 하여 새해의 이 아침 사람들의 가슴마다 승리의 희열과 래일에 대한 포부와 랑만이 가득 넘쳐나는 것 아니라.

어찌 그뿐이랴. 자강력으로 보다 큰 기적과 전변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질 새해의 첫대문에 들어선 기쁨으로 하여 더욱 궁지로운 2017년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책동에 매달렸다. 하지만 공화국은 그 모든 것을 개꿈으로 만들어 놓았다. 만리마의 기상이나래치는 속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하고 화가 북으로 전환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인민의 웃음넘치는 행복의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온 나라에 차넘친 사파향기, 사회주의바다 향기가 펼쳐놓은 호젓한 풍경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가. 어딜 가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산을 진감한 잊지 못할 2016년이었다.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 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걸

어갈 앞길을 내다보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심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탁월한 선군정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새해에도 우리 조국은 더욱 흥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 더 큰 복이 차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희망차고 즐겁고 유쾌한 2017년의 새해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2016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1세기 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난해는 과학기술을 증시하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워나갈데 대한 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이 자랑찬 현실로 꽃피는 해였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국방과학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보검들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눈부신 과학기술성공과를 련이어 이룩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들은 겁쟁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도 수없이 이룩하였다.

또한 새로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사회적으로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전사회, 발표회 등이 끊임없이 진행된것으로 하여 온 한해동안 과학기술열풍으로 들끓었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과학기술보급 및 교류활동들이 전례없이 활발히 진행되어 과학기술중시의 사회적분위기가 날과 달을 이어 연말까지 고조되었다.

우리 연구소만 놓고보아도 지난해에 통합생산체계추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업정보기술제품 수십여종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은 설비와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

화하고 기업체들에 통합생산체제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조종설비로서 지금까지 이 설비들만은 발전된 나라들의 것을 가져다 쓰는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우리 힘으로 연구개발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기어이 달성해냈다.

과학의 문은 결코 결실로 열수 없다. 이 땅의 모든 과학자들이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창조의 두뇌를 총발동할 때 조 어떤 과학의 문도 열수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과학기술강국의 척후병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최첨단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이룩하겠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최성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7 개막

즐거운 새해 맞이 풍경

-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 -

2017년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축하장기념품상점들이다.

평양역앞에 있는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도 축하장들과 기념품들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십여종에 달하는 각종 축하장들과 여러가지 특색있는 기념품들을 봉사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멀리 떨어져있는 부모님들과 존경하는 스승 그리고 친척, 친우들에게 축하장을 보내는것은 즐거운 새해 맞이풍경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

은 새해에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여왔다.

이는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랑속이라고 볼수 있다.

가정들에서는 서로 사랑을 보내어 덕담을 교환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서신으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고유한 미풍이 오늘날 새해를 맞으며 건강과 성과를 바라는 인사말을 담은 축하장을 주고받는 모습에도 비껴있는 것이다.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 판매하는 새해축하장들에는 민족의 성산 백

두산을 형상한 축하장들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담은 축하장들도 있고 동심에 맞게 귀여운 동물들을 형상한 축하장들과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을 형상한 축하장들, 대동문과 련광정, 평양종과 같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축하장들도 있다.

상점을 찾은 손님들은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는 축하장들을 고르기도 하고 축하장을 보내 대상에게 어떤 형식이 맞는지 봉사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그들중에는 고향에 계시는 그리운 부모님들과 정다운 모교의 스승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새해인사를 써내려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의 모습도 보였고 애인에게 보낼 축하장을 사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처녀의 모습도 보였다. 예로부터 문명하고 레의도덕이 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이어 이 땅에 꽃피어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새해의 영광을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한은경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최근 국제무대에서 조선 축구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축구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은경: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 몇해사이래 우리의 미더운 축구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인 강팀들을 누르고 우승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지난해는 여자축구계에서의 조선 열풍이 세계를 진감한 자랑찬 한해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요르단에서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가 진행되었는

데 우리 나라 팀은 잉글랜드팀, 브라질팀, 나이지리아팀, 베네수엘라팀 등을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함으로

서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을 쟁취하고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였다. 이 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승향심신수는 은뿔상을, 리해연신수는 은축구화상을 수여받았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도 우리의 여자 축구선수들은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은 스웨리에팀을 2:0, 브라질팀을 4:2, 에스빠냐팀을 3:2로 이기고 준결승경기에서 미국팀을 2:1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12월 3일에 진행된 유럽의 축구강자 프랑팀과의 결승경기에서 우리 팀 선수들은 공격수와 방위수들간의 협동을 강화하고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 3:1로 프랑팀을 이기고 2006년에 이어 또다시 20살미만 여자월드컵을 쟁취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해동안에 두개의 나이별월드컵보유, 이것은

국제축구련맹의 경기대회 력사에 기록될 대과문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인디아에서 진행된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나라 팀은 4강자전에 진출하여 2017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 본선참가자격을 위한 예선 2단계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은 중국 대북, 팜도, 중국 홍콩팀을 이기고 2017년 일본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 본선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지난해 3월 로씨야 쓰치에서 열린 2016년 《구반의 봄》국제 19살미만 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도 우리나라 팀은 결승경기에 진출하여 로씨야팀을 2:0으로 이기고 1위를 쟁취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최근 몇해동안에 우리나라의 축구기술수준이 세계적인 강팀들의 수준에 확고히 따라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 새해에 공화국의

축구선수들이 어떤 국제경기들에 진출하게 되는지 알고싶다.

한은경: 올해에 우리 축구선수들은 인디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련맹 2017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와 타이에서 진행되는 2017년 아시아축구



련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월드컵경기대회들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와 2019년 아시아축구련맹 아시아컵경기대회 최종자격경기에도 참가하게 된다.

우리의 미더운 남녀축구선수들은 뜻깊은 대경사의 해인 올해에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일념에 넘쳐있다.



통일로 가는 가장 곧바른 길

외세에 의해 우리 조국이 분열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 민족분열의 역사는 어느덧 72번째 년륜을 새기고있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이기나 긴 나날 우리 겨레는 나라의 분열로 인한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여왔다. 분열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 겨레가 겪는 피해와 재난은 더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고있다.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제라 되고있다.

공화국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시종일관 분열로선을 배격하고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여왔다.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공화국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 가야 한다.

민족의 최대숙원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

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오늘날과 같이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매일수룩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아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 행위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해에도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 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

하는것과 같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 반통일행위를 수많은 저질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망동은 민족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만을 초래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에서 교훈을 찾고 이제라도 친미사대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범죄적인 외세공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아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진리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

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열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아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이상 남조선

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최근 시기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례에 들어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동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망상에만 사로

잡혀 체제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면서 전쟁을 하자는것이냐 다름없다.

지난 수십년동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붕괴》를 요란하게 떠들어댔지만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것은 남조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남조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기에 처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이야말로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새해 2017년에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환적계기를 맞이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6. 15 공동선언리행에 통일이 있다

2017년의 새해가 밝았다. 민족분열의 년륜이 또 한 돌기 새겨진 지금 온 겨레는 올해에는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기를 한결 같이 바라보고있다.

조국해방의 감격이 분열의 아픔과 불행으로 바뀌어 진지도 어언 70여년.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일곱번 더 변하도록 우리 겨레는 아직 분열의 아픔을 가시지 못하고있다.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태어난 《해방동지》들의 머리에는 어느덧 흰 서리가 질게 드리워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분열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우리 겨레는 지난 기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느 한순간도 멈춤

이 없이 통일투쟁을 즐기차게 벌려왔다.

감격도 새로운 2000년 6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함께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가 도도히 굽어졌다. 북남사이로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이 열렸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열싸안고 갈라져 살수 없는 한겨레임을 눈물겹게 절감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했다.

분열의 장벽에 파렬구름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도 열렸다.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을 휘날리며 공동입장과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

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해불로 타올랐다.

이 나날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 가는 랑망을 느꼈고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의 북남관계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인하여 사상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그 누구의 《핵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화》와 《협력》이란 있을수 없고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고 력설하면서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여 날뛰어왔다. 나중에는 6.15의 소중한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중단시키는 최악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망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은 열핵전쟁이라는 최후의 계선으로 거침없이 향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이 바로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길이며 그를 저버림은 곧 분열의 지속이고 민족참화의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6.15통일시대의 감격과 환희는 절대로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철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와 통일을 일일천추로 념원하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힘찬 투쟁이 있기에 제2의 6.15통일시대는 반드시 이 땅위에 펼쳐지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과 기자가 나눈 대담 *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2017년 새해를 맞을 지금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본다.

한국철: 나라가 분열되어 70여년, 사람의 응근 한생과도 맞먹는 기간이다.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분열의 아픔을 가시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앞당겨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곧바른 통일방향을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열사에 증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펼쳐지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 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가 어려웠다. 절세위인의 진정넉치는 애국 애족의 호소에 고무되어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렸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과 남, 해외의 공동투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해 6월에 있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석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었다.

이 모든것은 북남사이에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대립과 반목,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

께 손을 잡고 과감한 실천으로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것처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시대를 개척한것처럼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공화국의 연석회의제안에 호응하여 그 개최를 위한 해외측 준비위원회도 결성되었는바 여기에는 중국, 일본, 독립국가협동체지역, 유럽, 카나다, 미국, 오세안주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준비위원회들이 망라되었다.

남조선에서도 연석회의개최를 위한 남측추진기획단이 결성되어 연석회의제안을 지지해나섰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연석회의가 비록 성사되지 못

하였지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겨레의 드높은 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파시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돛을 맞으며 진행된 연석회의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켰다.

기자: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는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추진기획단, 해외측준비위원회들의 실무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한국철: 그렇다.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

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으며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자: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있다.

한국철: 올해에 온 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현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애국의 한마음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길은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는 뜻깊은 한해로 빛내어나가겠다.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짓밟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게 될것이라는것이 이 시 각 겨레가 보내는 엄숙한 경고이다.

기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데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한국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이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힘있는 대중적통일전선조직으로 강화발전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온 겨레와 굳게 손잡고 뒀대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며 남과 해외의 정당, 단체, 광범한 각계인사들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대단결의지는 전례 없이 고조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꾼들은 민족이 단합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신심과 자주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2017년은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는 뜻깊은 한해로 빛내어나가겠다.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새해를 맞으니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망이 더욱 끓어 오른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민족이 일구월심 바라는 통일이기에 그것을 안아오기 위한 겨레의 투쟁도 즐기차게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민족내부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분열의 비극은 지속이 되고있는것이다.

민족이 통일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나도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 새해에도 겨레의 숙원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겠다.

평양시 평천구역 김영성

화해와 단합의 길에 나서야

밝아온 2017년에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남조선당국이 수처스러운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민족은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데 동족을 계속 적대시하고 압살의 광기를 부린다면 날아날것은 북남관계이고 초래될것은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2016년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집권세력은 공화국의 그

무슨 《붕괴》에 기대를 걸고 동족대결과 적대행위들을 벌려왔다.

이러한 동족대결책동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새해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대결이 아니라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개성시인민위원회 리철수

한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다. 우리 민족의 분열의 년륜도 어언 72돌기를 새기고있다.

분열 70여년 력사는 겨레의 아픈 가슴을 더욱 멩들게 하고 있다. 돌로 갈라지면 살수 없고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와 같기에 해가 바뀌어도 끊기지 않고 나날이 더욱 타오르는 겨레의 통일열망이다.

밝아온 이해의 첫 아침,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여 우리 겨레가 가장 소

원하는것은 아마도 조국통일일것이다. 이해에는 깨어진 북남관계도 다시 복원되고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렸으면 하는 모두의 희망과 념원이 2017년의 해돋이를 더욱 붉게 물들이고있다.

겨레가 바라는 통일은 북남관계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 쫘쫘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다시 녹이자면 흘러온 2016년을 뒤돌아보고 교훈을 새겨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남관계가 완전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한해였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소망

은 뜨겁고 민족의 힘으로 북남관계를 열어나가자는 공화국의 호소도 절절하였지만 북남관계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전쟁직전의 문어구까지 다달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에 기인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선의 있고 적극적인 호소와 노력을 매번 《진정성》이니, 《통일

전선용》이니 뉘니하며 우롱하고 오직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핵포기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일변도에만 매달려왔다.

《신뢰》의 가면도 다 벗어 던지고 북을 압살할 흉계를 로 꾀적으로 드러내면서 《대화도 필요없고 제재압박만 해야 한다.》며 동족대결의 광기를 한껏 부리었다.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고 6.15의 옥동자였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망동을 부리고 돌아앉아 외세와 함께 온 한해 북침을 노린 대규모합동전쟁연습에 매달렸다. 지어 《평양점령》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제도를 전복하려는 흉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발광적인 놀음도 벌려놓았었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과 저들의 처참한 인권유린실상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 누구의 《인권》을 걸고들며 온 한해 분주량을 피우고 반공화국압살을 노린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미친듯이 날뛰었다. 공화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해외에서 집단랍치하는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집권자가 나서서 《북주민들은 남으로 내려오라.》고 《탈북》을 선동하는 나발도 불어냈다.

그러니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 불신과 대결은 최고조에 이르고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만이 절게 감돌아 흘렀었다.

지나온 2016년이 다시금 새겨주는 교훈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상대방을 해치려는 불순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동족대결에 계속 매달릴 때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고 이 땅

에서는 참혹한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것이다.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볼것은 우리 겨레사이이다.

하기에 북남관계를 망치게 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태롭게 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극도의 동족대결책동은 온 겨레의 저주를 받고 강력한 규탄배격에 부딪쳤다.

2016년이 저물어가는 속에 남조선에서 박근혜대결 《정권》이 민심의 준엄한 탄핵심판을 당한것도 동족대결정책, 북침전쟁책동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기도 하다.

남녘의 민심, 온 겨레의 마음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고있다. 동족대결은 반통일이고 반평화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는것은 2016년이 다시금 보여준 첩리이다. 화해와 단합의 길에 통일이 있고 이 땅의 평화도 있다.

밝아온 2017년에는 동족대결의 어둠이 물러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간절히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2016년, 북남관계가 남긴 교훈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해내외동포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06(2017)년 1월 1일